



Russia

블라디보스토크지사

프리미엄반려동물 식품시장의 무한 잠재력



반려동물 사랑이 남다른 러시아

러시아의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반려동물을 많이 기르는 국가인 러시아에서는, 평균적으로 두 가정 중 한 가정에서 고양이나 개를 기르고,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동시에 여러 마리의 동물을 기르고 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내 고양이는 약 2천 5백만~3천만 마리고 강아지는 2천만 마리가 살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의 종은 대부분 순수한 종이 아니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순종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집을 지키거나 쥐를 잡기 위해 반려 동물을 키웠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삶을 함께하는 친구이자 가족으로서 반려동물을 원하는 데에도 기인한다. 가족의 동반자로서 반려동물의 지위가 상승함과 동시에 동물들을 돌보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과 변화는 반려동물들을 위한 제품 시장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료 및 장난감 분야이다.

반려동물 사료 중 가장 큰 매출이 일어나는 파트는 간식이

다. 제조업체와 판매상점들은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지고 반려동물의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9년에 건식사료의 평균 가격이 9.5% 증가했으며, 이는 반려동물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한 수요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 제품 시장은 경제적 충격에도 내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관심을 산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소비자들은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에서 쉽게 절약하지 못는데,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도 익숙한 맛이 아니면 잘 먹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료시장도 점차 세분화·전문화

올해 러시아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생산량은 1백만 톤에 달할 것이며 판매량은 30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반려동물 사료 시장은 FMCG*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범주 중 하나이고, 사료시장의 점유율은 전체 식품시장의 5.5%이며 성장률은 인간을 위한 식품시장보다 4배 높다.

*FMCG : Fast-Moving Consumer Goods(일용소비재 시장)

| 러시아에서 시판 중인 사료의 종류 |



Whiskas
보통사료
350g
92루블 (1,459원)



Purina.Pro Plan
프리미엄
400g
310루블 (4,916원)



Royal Canine
슈퍼 프리미엄
400g
347루블 (5,502원)



Prolife
홀리스틱
400g
596루블 (9,451원)



Pedigree
보통사료
600g
88루블 (1,391원)



Purina. Pro Plan
프리미엄
700g
390루블 (6,165원)



Royal Canine
슈퍼 프리미엄
800g
430루블 (6,7912원)



Prolife
홀리스틱
600g
782루블 (12,350원)

| 러시아에서 시판 중인 반려동물 간식 종류 |



Felix. Party Mix
스낵 (건식)
20g
29루블 (460원)



Felix. Sensations
간식 (습식) - 소고기 젤리
85g
28루블 (444원)



Gourmet. Gold
통조림 (습식)
85g
54루블 (8563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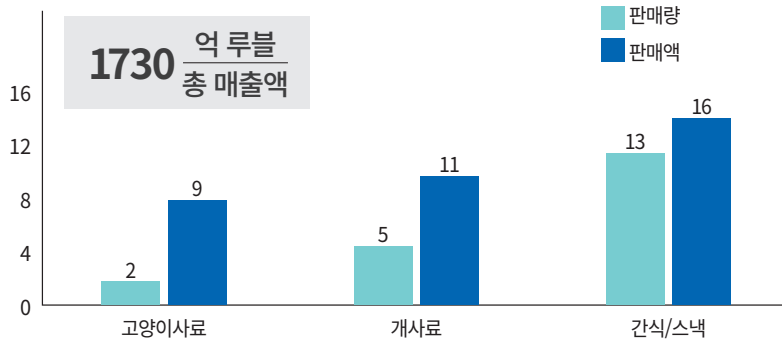
Pro Plan. Biscuits
스낵 (건식) - 쿠키
400g
378루블 (5,995원)



Stuzzy Friends. Dental Premium
스낵 (건식) - 치아건강 스틱
210g
220루블 (3,488원)

| 러시아 애완동물 사료 시장 성장 |

*2018년 10월 ~2019년 9월 기간



이를 반영하듯 최근 3년 동안 러시아에서는 반려동물 사료의 생산이 증가했다. 러시아 전체 반려동물 사료는 반려동물 제품시장의 8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73.3%가 고양이 사료이고 15.2%가 강아지 사료, 0.5%가 설치동물 사료다. 사료 제조업자들은 구매자들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특성에 맞는 사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특성에 맞춘 사료의 종류는 다이어트 사료, 1세 이하의 강아지 및 고양이를 위한 사료, 6세 이상의 반려동물을 위한 건식사료 그리고 순종용 사료 등이 있다. 전문화된 사료의 다양성은 판매 수익을 증가시킨다. 전체적으로, 러시아에서 58.9%의 강아지 주인들과 37.3%의 고양이 주인들은 슈퍼 프리미엄/프리미엄 사료를 산다. 그러나 주요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보통사료에 남아있다.

프리미엄 제품과 간식시장 전망 밝아

외국 기업들은 러시아 사료 시장의 약 80~85%를 점유하고 있다. 선도 기업은 다국적 기업인 Mars (브랜드: Royal Canin, Whiskas, Kitekat, Pedigree 등)과 Nestle (브랜드: Friskies, Purina, Felix)이다. 이 기업들은 고양이 사료 매출의 최대 75%를 차지하며 대부분 러시아 내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에 따르면 사료 판매는 연간 10~15%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을 아끼지 않는 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프리미엄 또는 슈퍼 프리미엄 분야의 사료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부분은 간식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러시아의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인들은 반려동물을 위해 계속 간식을 구매하고 있다. 고양이를 위한 간식제품의 종류를 자세히 보면 종류는 다양하다. 비타민, 여러 가지 모양의 간식, 바삭바삭 스낵, 소시지 (다랑어 맛, 닭고기 맛 등), 장 속에 있는 털을 제거하기 위한 페이스트, 생선 젤리, 그리고 임신한 고양이를 위한 스낵도 있다. 강아지 스낵의 종류는 고양이의 간식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비스킷, 쿠키, 소시지, 뼈, 육포 등이 있다.

Key Point

한국제품 우수성 내세워
틈새시장 개척해야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유난히 큰 러시아 소비자들이 관련제품에 지갑을 열 가능성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는 의미이다. 이를 보여 주듯 간식을 포함한 반려동물 식품시장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가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반려동물 식품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며 우수한 제품력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발판으로 러시아를 향한 수출 길을 찾아 틈새시장 개척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